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타임즈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문화예술인 한마당 개최	1
江原日報	03면	자치도의회 임시회 돌입	2
江原日報	03면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 지원 조례 내달 발의"	3
강원도민일보	02면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해결 도의회 차원 지속 관심을"	4
신아일보	온라인	엄기호 도의원, "주민 건강·행복 위해 맨발 걷기 길 조성해..."	5
문화매일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 엄기호 의원, 주민 건강·행복 위해 맨발 ...	6
MBC 강원영동	온라인	심오섭 강원도의원, "강릉에 도립 재활병원 설립해야" 제안	7
세계일보	온라인	심오섭 강원도의원 "영동지역에 도립재활병원 설립해야"	8
KBS 춘천	온라인	강원도의회 제323회 임시회...동의안·조례안 심의	9
KBS 춘천	온라인	강원도의회, 도청 신청사 예정 부지 매입 심의	9
江原日報	19면	[강원포럼] 지방의료원, 수혜자부담원칙 필요	10
江原日報	10면	"화합의 가치 실현하는 춘천 만들자"	11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화천 향토어종 치어 방류	12
G1방송	온라인	이영욱 도의원, 교복 구입비 지원 "실효성 높여야"	12
강원도민일보	15면	[동정] 최상기(위 왼쪽) 인제군수·이춘만(위 오른쪽) 군의...	13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엄윤순 강원특별자치도의원	13
강원도민일보	01면	'함께 빛나자! 샤인 투게더!' 평창 재도약 시동	14
강원도민일보	03면	성화 불꽃처럼... 범국민 열기 후끈	15
강원도민일보	04면	강원도 세수 결손에 '교육협력 사업' 교육청 부담 220억원 ...	16
강원도민일보	04면	도교육청 국감 대비 본격화... 전·현직 교육감 나란히 출석	16
江原日報	02면	플라이강원·전세사기범 연루 망상지구사업... 강원자치도 ...	17
江原日報	04면	'학교 소멸 막아라' 11개 교육 특례 추진	18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다시 요동치는 고물가 불안	19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산림엑스포 유종의 미 거두길	20
江原日報	19면	[사설] 강원관광에 활력 불어넣고 있는 '세계산림엑스포'	21
江原日報	19면	[사설] 중동발 강원 경제 먹구름, 선제 대응에 나서야	22

2023 10 11 ()

강원타임즈**강원특별자치도, 강원문화예술인 한마당 개최**

"2023년 10월12일부터 개막식-시군대표공연-작품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 진행"



【강원타임즈】 김장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와 인제군은 2023년 10월12일 오후 6시 인제잔디구장에서 제1회 강원예술인한마당 개막식을 개최한다.

이날 개막식은 김진태 도지사와 최상기 인제군수를 비롯,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이재한 한국예총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장, 최찬호 강원 민예총 이사장, 신현상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과 시군 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도내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다.

이에 이날 개막식은 문화의 날을 맞아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창달과 향토문화발전에 헌신한 분에게 수여하는 제65회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시상과 문화예술진흥유공자 표창을 함께 진행한다.

이어, 개막선포 퍼포먼스와 부대행사로 각 시군을 대표하는 공연팀들의 공연이 이어져 문화예술인 화합의 장을 펼친다.

강원예술인 한마당은 김진태 도지사의 핵심공약사업으로 매년 시군 순회로 개최했던 문화의 날 행사를 나흘간의 행사로 확대한 것으로, 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강원예술인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문화의 달 공식행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개막식을 비롯 공연, 전시, 대담 등 다채로운 발표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과 장르를 통합해 문화예술인이 교류하는 행사로, 12일, 개막식 부대행사로 시군대표팀 공연으로 시작해 10월13일부터 15일까지 강원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강원문화예술대담과 △한국예총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생활예술동호인 경연대회 △강원민예총에서 주관하는 미술전 △한국사진협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사진전 등이 개최되고 예술인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문화기행 △도내 문화예술사업 홍보 및 상담부스를 운영하는 강원예술인라인지 운영이 인제군내 문화시설 6개소에서 각각 개최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그동안 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시간이 부족해 만든 자리인 만큼 2023년 강원예술인한마당을 시작으로 예술인과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형 예술행사로 발전해 가길 바란다”며, “도지사로서 예술인과 도민 모두가 문화로 하나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江原日報

2023 10 12 ()

03



자치도의회 임시회 돌입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권혁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김진태 도지사, 신경호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0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박승선기자

江原日報

2023 10 12 ()

03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 지원 조례 내달 발의”

강릉 사고 유가족 참석 도의회 5분 자유발언서 김용래 의원 주장
이승진 “특구 모델 차별화” ... 심오섭 “영동 도립 재활병원 필요”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강원자치도의회가 11일 개최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용래(국민의힘·강릉) 도의원은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고(故) 이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씨가 방청한 가운데 “급발진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 가정의 일상이 멈추고 파괴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 고통만이 지속되고 있다”며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시급하다. 또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들이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1월 발의를 목표로 조례 제정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승진(더불어민주당·비례) 도의원은 정부의 4대 특구 도입 등 지방시대 정책이 특별자치도 이상의 지방 균형발전 유인책을 내포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특례 발굴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특구 모델 개발에도 집중해야 한다”며 “인사 혁신, 업무

혁신, 강원연구원의 업무 재정립 등 조직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오섭(국민의힘·강릉) 도의원은 영동지역 도립 재활병원 건립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심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학생들이 도립대 보건계열학과를 졸업하고, 도립 재활병원 및 도립의료원에 취업해 재활이 필요한 도민을 돌볼 수 있는 이상적인 순환구조가 완성되면 모두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복 착용 문제는 학교 구성원의 자율에 맡기되 교복을 착용해야 하는 학교는 교복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영욱(국민의힘·홍천) 도의원은 “교복 구입비 지원과 관련해 학생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유연함을 발휘해 교복이 갖고 있는 순기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맨발 걷기 활성화 제안을 주제로 발언한 엄기호(국민의힘·철원) 도의원은 “주민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한 맨발 걷기 길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강원자치도의 경우 천혜의 자연을 활용한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면 관광객 유치에 위한 콘텐츠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10 12 ()

02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해결 도의회 차원 지속 관심을”

김용래 의원 5분 자유발언 촉구
피해 지원 조례 11월 발의 예정
강원형 특구 모델 3곳 등 제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의 관심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급발진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약속했다.

김용래(강릉) 의원은 11일 제323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를 언급하며 “한 가정의 일상이 멈추고 파괴된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 교통만이 지속되고 있다”며 “조속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또, “급발진의 심 사고 피해자들이 어디에서도 ‘사건 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11월 발의를 목표로 조례 제정에 힘쓰고 있다”며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고로 아들 도현군을 잃은 유족은 이날 도의회에서 5분발언을 방청하고, 김진태 도지사, 도의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사고로 자동차 결함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 등이 언급됐으나,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후속조치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 제323회 1차 본회의가 1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서영



김용래 이영욱 이승진 심오섭 엄기호

이영욱(홍천) 의원은 “개성 표현을 위한 학생들의 욕구도 강해졌고, 학부모도 자녀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욕구가 커졌다”며 “교육작용 문제는 학교구성원의 자율에 맡기되 교육 구입비 지원에 따른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학생 입장’을 반영한 교육선택을 강조했다.

이승진(비례) 의원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핵심 정책인 특구 지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특별자치도의 특례발굴을 통해 그 실현가능성을 제고하자”며 “상수원보호구역·접경지역·폐

광지역 3개 지역을 ‘강원형 특구 모델’로 제안했다.

심오섭(강릉) 의원은 “영동지역 시, 군도민들의 원활한 재활치료를

위해 영동지역 거점도시 강릉에 도립 재활병원의 추가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와 연계해 강원도립대 보건계열학과 개설, 청년간호사 급속장려금 지원사업 확대를 제안했다.

엄기호(철원) 의원은 “공원, 둘레길, 산책로 등에 바다모래길, 마사토길, 황토길 등 맨발걷기 코스를 조성해 달라”고 했다. 또, “마사토 운동장을 활용해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맨발걷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자”며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장을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자”고 했다. 이철화

신아일보

2023 10 11 ()

엄기호 도의원, "주민 건강·행복 위해 맨발 걷기 길 조성해야"

김정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철원2)은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0월11일)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건강·행복 증진을 위한 맨발 걷기 길 조성을 주문했다.

엄기호 의원은 근래 맨발 걷기가 전국적으로 큰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도시공원, 들레길 등에서 맨발걷기를 하는 사람들을 쉽게 마주칠 수 있다고 말하고, 올해 3월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가 전북 전주시에서 최초로 제정된 데 이어 전국 광역·기초 의회에서 맨발걷기 조례가 앞 다투어 제정되고 있어 강원자치도에서도 자신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관련 조례를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한다면 영서 지방은 물론이고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삼척의 해변의 경우 관광객 유치에 위한 최고의 관광 콘텐츠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강원도/김정호 기자

jhkim@shinailbo.co.kr

2023 10 11 ()

문화매일

강원특별자치도 엄기호 의원, 주민 건강·행복 위해 맨발 걷기 길 조성해야

엄기호 의원 도의회 5분 자유발언 ? 자치도·기초 지자체 및 학교에 맨발 걷기 길 조성 필요

최광수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문화매일신문=최광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철원2)은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0월 11일)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건강·행복 증진을 위한 맨발 걷기 길 조성을 주문했다.

엄기호 의원은 근래 맨발 걷기가 전국적으로 큰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도시공원, 둘레길 등에서 맨발걷기를 하는 사람들을 쉽게 마주칠 수 있다고 말하고

올해 3월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가 전북 전주시에서 최초로 제정된데 이어 전국 광역·기초의회에서 맨발걷기 조례가 앞 다투어 제정되고 있어 강원자치도에서도 자신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관련 조례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의 경우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한다면 영서 지방은 물론이고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삼척의 해변의 경우 관광객 유치에 위한 최고의 관광 콘텐츠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 강원영동

2023 10 11 ()

심오섭 강원도의원, "강릉에 도립 재활병원 설립해야" 제안

김인성

춘천에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재활병원' 같은 재활병원을 강원 영동지역에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심오섭 의원은 오늘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동지역 주민들이 춘천의 도립 재활병원을 이용하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 강릉에 도립 재활병원을 추가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영동지역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함을 물론이고 강릉, 삼척, 영월에 있는 5개 대학 보건계열 졸업생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3 10 11 ()

세계일보

심오섭 강원도의회 “영동지역에 도립재활병원 설립해야”

강원 영동지역에 도립재활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오섭 강원도의회 의원은 11일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질환 증가로 재활수요가 폭증하는데도 도내 도립재활병원은 춘천 1곳에 불과하다. 영동지역에 도립재활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오섭 강원도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심 의원은 “강원도의 인구 대비 고령화 비율은 전국 최고수준”이라며 “반면 인구당 재활 의학과 전문의 수는 전국 평균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강원도 고령화 비율은 23.7%로 전라남도(25.9%), 경상북도(24.4%), 전라북도(23.9%) 다음으로 높다. 고령화 비율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인구의 노령화 정도를 나타낸다.

심 의원은 “특히 영동권 지역주민들은 먼 거리 등 물리적 문제로 인해 도립재활병원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영동 거점도시인 강릉에 도립재활병원을 추가로 설립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립재활병원 설립과 함께 강원도립대학교에 보건계열학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도립대학교를 졸업하고 도립 재활병원과 도립의료원에 취업해 재활이 필요한 도민을 돌볼 수 있는 이상적인 순환구조가 완성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2023 10 11 ()

강원도의회 제323회 임시회...동의안·조례안 심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늘(11일)부터 이달(10월) 20일까지 '제323회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와 강원문화재단, 한국여성수련원 등에 대한 출연 동의안과 강원도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반도체 산업 육성 조례안 등을 각각 심의합니다.

또, 강원 도정과 교육 행정에 대한 질문과 2023년 어린이 도의회 등도 예정돼 있습니다.

송승룡 oberona@kbs.co.kr



2023 10 11 ()

강원도의회, 도청 신청사 예정 부지 매입 심의

강원특별자치도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강원도의 토지 취득 계획이 강원도의회에서 심의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강원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이번 주 현지 실사를 벌여, 다음 주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 강원도가 매입하는 땅은 13만 제곱미터 규모로, 이 땅의 공시지가가 165억 원 수준입니다.

강원도는 실제 토지 매입 자금이 450억 원가량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박성은

江原日報

2023 10 12 ()

19

강원특별자치도의 공공 의료가 무너지고 있다. 소아 청소년과에서 시작된 필수 의료 붕괴가 심혈관질환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른 진료과목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

호사, 약사까지 잇따라 퇴사하며 도내 의료공동화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수도권 병상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진은 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강원도를 떠난다. 미래를 대비해 지방의 대에서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하고 있지만 도내 의과대학 2곳에서 14%, 18%의 지역인재만 충원되며 최저 의무선발비율(20%)도 채우지 못했다. 남아 있는 의료진 업무가 가중되고 이탈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

이다. 얹친 데 덮친 격으로 지방의료원은 지난해 코로나19 지정병원에서 해제된 이후로 정부 지원금이 크게 줄며 운영난을 겪고 있다.

한국 지방의료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 풍토병이나 보건의료와 관련된 국가적 재난대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희생과 봉사,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영리 목적 달성보다는 이타적인 관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익에 신경 쓰지 않고 공공의료 본연의 목적 달성에 힘쓰다 보니 적자병원이라는 비아냥을 듣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강원포럼

정재웅 강원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나 의원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일도 적지 않다. 현재 도내 5개 지방의료원의 총 부채는 660억원이 넘는다.

물론 흑자나 적자나를 따지는 것이 지방의료원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는 되지 못한다. 논쟁거리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서비스 확대 강화라는 근본적인 목표의 달

타개할 해결책이 필요하다. 현재 도에서는 지방의료원의 손실비용 계측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각 시·군에서는 부족한 필수의료 과목을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의료에 수혜자부담의 원칙을 적용, 시·군에서 재정을 도와 분담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진료권역별 의료원이 소재한 시·군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해당 의료원 이용률을 분석하면 각 시·군의 적정 재정분담 비율을 파악할 수 있다. 우수한

의료진 확보, 경영의 효율화를 통해 건전한 운영 상태

에 도달하면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더불어 의료원 이용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시·군의 재정분담은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역의료책임기관인 지방의료원의 의료안전망을 유지하고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효과가 생긴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된 만큼 의료보전 분야에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도와 더불어 각 시·군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한다면 공공의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료원, 수혜자부담원칙 필요

성 여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야 한다.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수의료체계가 유지되지 못한다면 지방의료원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도에서 5개 지방의료원에 투입하는 예산은 2019년 220억원에서 2022년 360억원으로 64% 증가했다. 하지만 매년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의료진 급여 인상, 재료비 상승, 노후화된 시설·장비 개선 등으로 여전히 필수의료체계 유지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도에서 지방의료원에 투입하는 재원만으로는 공공의료의 목표달성이 한계에 부딪친 상황이고 이를

江原日報

2023 10 12 ()

10



◇춘천시가 주최하고 춘천시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제22회 춘천양성평등대회’가 11일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화합의 가치 실현하는 춘천 만들자”

제22회 춘천양성평등대회

‘제22회 춘천양성평등대회’가 11일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춘천시가 주최하고 춘천시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꿈의 미래, 우리의 열정으로’를 주제로 1,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춘천시여협의 활동을 돌아보는 영상 상영과 함께 21세기 남녀평등헌장 낭독이 이어졌다. 유공자 표창에는 이옥희, 박금순, 문성이씨가 춘천시장상에 이름을 올렸으며, 김복순, 권연옥씨에게는 춘천시의회장상이 돌아갔다. 윤명희씨는 도여성단체협의회장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강원일보 어린이합창단이 축하공연을

진행, 남녀 모두 행복한 도시 춘천을 바라며 음악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는 개그맨 이정수가 출연해 양성평등 특별강연을 펼쳤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여성이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 진출에 문제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따뜻하고 배려있는 공동체 조성을 위해 항상 소통하고 화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춘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권주상 춘천시 부의장,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안정희 도여성단체협의회장, 이금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 정명자 한민족통일여성도협의회장, 김금분 김유정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민희기자

2023 10 11 ()

江原日報

[포토뉴스] 화천 향토어종 치어 방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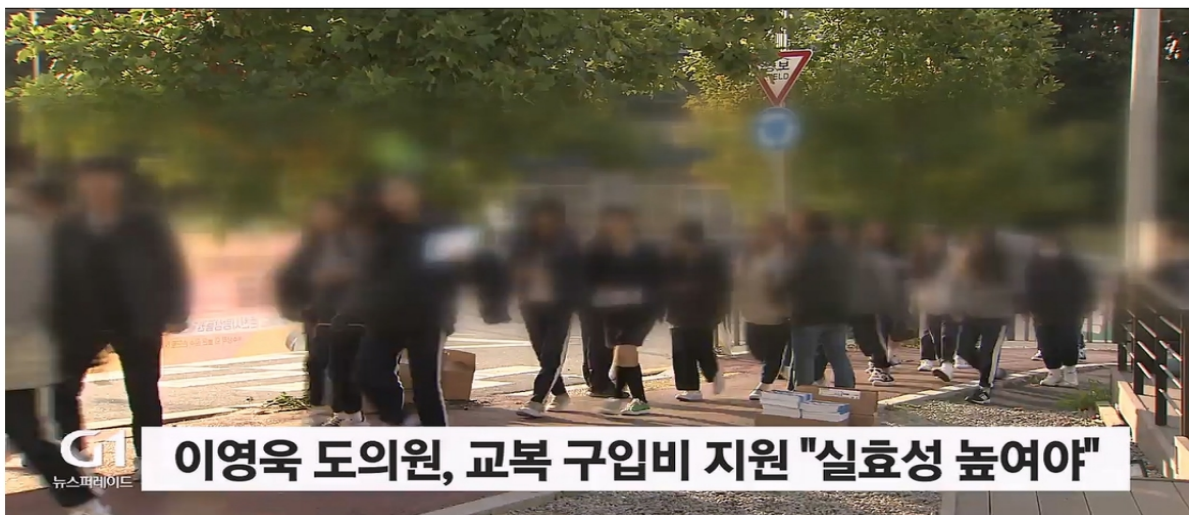
화천군 간동면 파로호 선착장에서 11일 '향토어종 치어방류 행사'가 최문순 군수, 박대현 도의원, 이화원 군노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붕어와 잉어 등 치어 103만2천여마리를 방류했다.

2023 10 11 ()

G1방송

이영욱 도의원, 교복 구입비 지원 "실효성 높여야"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영욱 의원은 오늘(11일) 도의회에서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고등학교 교복 구입비로 약 3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학생들이 교복을 잘 착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생들이 스스로 잘 착용할 수 있도록 옷감 재질의 고급화와 학생이 원하는 디자인으로의 변경 등 교복 구입비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12 ()

15



최상기(위
왼쪽) 인
제군수·이
춘만 (위
오른쪽)

군의장·엄윤순 (인
제) 도의회 농림수산
위 부위원장은 12일
오후 6시 인제천연잔
디구장 야외특설무대
에서 개최되는 2023
강원예술인한마당 개
막행사에참석한다.

2023 10 11 ()

江原日報

[동정] 엄윤순 강원특별자치도의의원

엄윤순(인제)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오후 6시 인제천연잔디구장 야외특
설무대에서 열리는 2023 강원예술인 한마당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 10 12 ()

01

‘함께 빛나자!샤인 투게더!’ 평창 재도약 시동

2024강원대회 G-100 기념행사

성화 투어 축하 불업 확산

강원도 30억원 부담 최종 확정

정부 대회 성공 강력의지 해석

GANGWON
2024

전 세계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무한한 꿈을 펼치게 될 '2024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이 대회 G-100 일 기념 행사를 시작으로 공식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와 2024대회 조직위가 대회 운영 인력 관리 명목 등으로 134억원을 추가 요청한 건에 대해 정부는 강원도 부담 몫으로 30억원을 최종확정했다. 이 같은 결과는 2024대회 개최 100일을 앞두고 전격 타결, 대회 성공 개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재표명된 것으로 해석된다.

아시아권에서 처음 개최되는 2024 강원대회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을 이어가며 평창 올림픽의 영광을 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채화돼 8일 우리나라에 도착한 올림픽 성화는 1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강원 2024G-100일' 기념 행사에서 점화, 본격적인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2024 강원대회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서 치러지는 유일한 국제 스포츠 행사인 만큼, 성공 개최를 향한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가 피력돼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강원 2024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이번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밝힐 성화가 피어올랐다. '2024강원대회 G-100일 기념 행사'가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진중오·이상화 2024강원대회 공동 조직위원장 등이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화 점등식을 갖고 대회의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사진제공=강원특별자치도

대회가 성공을 넘어, 세계인들이 가슴 속에 기억하고 환호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비롯, 이철규 (동해·태백·삼척·정선)·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웅국 회의원, 진중오·이상화 강원 2024 공동 조직위원장, 김연아·윤성빈·김예리·박재민 강원 2024홍보대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서울에서 출발, 전국으로 이어지는 성화 투어의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기념 행사는 케이팝 공연을 통해 문화로 하나 되는 스포츠 축제를 주제로 진행, 2024대회 불업을 확산시켰다.

이날 행사에선 진중오·이상화 공동 조직위원장이 성화 램프를 들고 무대에 등장했고, 이어 강원 2024 홍보대사이자 평창올림픽 스키레톤 금메달리스트

윤성빈 선수가 박지원 (쇼트트랙)·이종원 (서울 경북고 육상 꿈나무)·양승주 (서울 구로고 육상 꿈나무)·윤서진 (피겨스케이팅 청소년 국가대표)·소재환 (봅슬레이 청소년 국가대표·상지대관령고) 등 5명의 선수와 함께 성화 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피겨여제 김연아 홍보대사는 '청소년들에게 스포츠의 즐거움을 알리고, 성장을 통해 빛날 수 있게 돕는다'라는 의미를 담은 캐치프레이즈, '함께 빛나자! 샤인 투게더!'를 소개하며 대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호응을 이끌었다.

김진태 지사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2023강원세계산악스포츠 등 국제적 규모의 행사를 연이어 성공적으로 개최한 저력을 지닌 곳"이라며 "이번 강원 2024대회도 우리 강원도민들과 함께 멋지게 치러내겠다"고 했다. 이세훈

▶ 관련기사 3면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강원 2024 G-100일' 기념 행사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성화 불씨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강원특별자치도

성화 불꽃처럼... 범국민 열기 후끈

**GANGWON
2024**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향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열기가 달아오고 있다.

11일 '2024강원 G-100일 기념 행사'가 열린 서울광장은 게이트 오픈 전부터 국내 시민들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관객들은 행사장 일대에 마련된 강원 2024 대회 홍보관 부스에서 스키·스노우보드, 컬링, 사격 등 동계올림픽 종목을 체험하거나, 마스코트 몽초와 함께 기념 사진 촬영을 하는 등 즐겁게 축제를 만끽했다. 이어 시작된 기념 행사에선 K-콘텐츠가 조화를 이룬 스포츠 축제의 모습이 그려졌다.

록밴드 '크라잉넛'이 무대에 올라 분위기를 띄웠고, 댄서 김예리 홍보대사와 갬블러크루, 강원도 학생댄스연합팀이 대회 주제곡 '위고하이(WeGoHigh)'에 맞춘 합동공연으로 축하 무대를 선보이자 국내외 관객들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또 인기가수 이영지, 라이즈(RIIZE), 있지(ITZY)가 케이팝 공연으로 행사 열기는 절정에 달했다.

특히, 이날 기념 행사의 하이라이트

강원 G-100일 행사장 인산인해

홍보부스 체험존·K팝 공연 인기

성화 불씨 80일간 23개 도시 순회

인 성화 점화에는 '강원 2024대회' 출전 선수이자 전국대회에서 3관왕을 달성하며 봅슬레이 유망주로 떠오른 소재환 선수와 피겨스케이팅 청소년 국가대표 윤서진 선수를 비롯, 평창동계올림픽 봅슬레이 금메달리스트 윤성빈 홍보대사가 참여해 아시아권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의미를 더했다.

홍천군이 고향으로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현수(33)씨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청소년 동계올림픽까지 강원도에서 열린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 마무리 수

있도록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에서 타오른 올림픽 성화의 불씨는 앞으로 총 80일간 국내 23개 도시에서도 밝혀지게 된다.

올림픽 성화는 오는 14일 부산 녹음광장에 두 번째로 모습을 나타내게 되며 전준상 스키 청소년 국가대표, 김아론 피겨스케이팅 선수, '강원 2024' 대회에 크로스컨트리 선수로 출전하는 허부경 등이 주요 성화 점화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어 25일 세종, 28일 제주를 거쳐 강원도내에서는 11월 7일 속초를 시작으로 12월 28일 강릉을 마지막으로 성화 투어가 마무리된다. 4개 개최도시(강릉·평창·정선·횡성)의 성화 투어는 소외계층을 직접 방문하는 '특별 성화 투어' 방식으로 진행된다. 성화 투어에는 스포츠 꿈나무, 장애인, 호국용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된 109명이 참여한다.

이세훈

2023 10 12 ()

04

강원도민일보

강원도 세수 결손에 '교육협력 사업' 교육청 부담 220억원 는다

정부재정난 가중 분담 비율 조정



정부재정난이 가중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을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예산

을 마련해 온 교육협력 사업에서 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 규모가 22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11일 본지 취재결과 도는 최근 도교육청에 협력사업 예산 분담 비율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원도와 18개 시군, 도교육청이 함께 부담하는 사업은 학생 급식, 교복, 원어민강사비, 동계스포츠 인재육성 등이다. 도는 급식(식품비)의 경우 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하고 교복과 원어민강사비, 동계스포츠 인재육성 사업은 도교육청이 100%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올해 말까지 거둬들일 지방세는 당초 예상보다 2000억원 가량 줄어 들

도, 결손 규모 최대 4100억원 예상

도교육청 부담 요청 19일 비율 확정

“교복 등 필수사업 차질없이 지원”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감소액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세수 결손 규모는 최대 4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결국 지방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1조원 가량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해 둔 도교육청에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도의 분담비율 조정안을 수용할 계획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원도의 재정 건전을 위해 우리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쪽으로 참여하려 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급식비 178억원, 교복 31억원, 원어민강사 13억원, 동계스포츠 인재육성 3800만원 등 총 220억을

추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며 “신규사업을 추가로 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교복, 급식 등은 학생 대상 필수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재정전망이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나눠지는 교부금은 당초 예산보다 11조원 가량 감소, 올해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내려올 교부금도 5000억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내년도 교육부 교부금 총액 규모도 올해 대비 6조 9000억원 가량 감소, 도교육청 지원 예산도 올해 대비, 32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진태 지사와 신경호 교육감은 오는 19일 도교육청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분담 비율 조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민엽

강원도민일보

2023 10 12 ()

04

도교육청 국감 대비 본격화... 전·현직 교육감 나란히 출석

민 전 교육감 ‘북한 현장학습’ 질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17일 경북대에서 예정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예상질의답변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11일 본지 취재결과 이날 기준 도교육청에 들어온 국감 관련 자료요구는 공통요구자료 223건과 국회의원 개별요구자료 582건 등 80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앞서 지난 2018년 민사고 재학 당시 학폭 가해행위를 해 강제전학된 정순신 자녀와 관련된 자료요구는 113건, 교권과 관련된 자료요구는 17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도교육청 국감에는 민병희 전 교육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국감에는 신경호 교육감도 출석할 예정이어서 전·현직 강원교육감이 함께 국감장에 나오게 됐다. 이를 두고 도교육

청 내부에서도 “전·현직 교육감이 나란히 국감에 출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민 전 교육감은 이번 국감에서 지난 2020년 강원도교육청이 제작했으나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교육부로부터 전량 회수 및 폐기 요구를 받은 ‘중·고교 학생들의 북한지역 현장학습을 위한 가이드북’과 관련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 전 교육감은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에는 남북 관계가 좋았다. 북한으로 수학여행을 추진해 보자는 등의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 계획이 무산되면서 만든 게 책자인데, 내가 교육감이던 시기에 이미 정리가 된 일”이라 말했다. 이어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폭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처리한 일이라 나는 몰랐다. 이에 대해 내가 할 이야기는 없다”고 했다. 정민엽

江原日報

2023 10 12 ()

02

플라이강원·전세사기범 연루 망상지구사업...

강원자치도 현지 국감 불꽃 공방 예고

오는 24일 5년 만의 강원특별자치도 현지 국정감사를 앞두고 도정 현안에 대한 여야의 자료 제출 요구가 쇄도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강성 정치인 출신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피감기관장으로 나서는 첫 방어전이라는 점에서 거친 설전도 예상된다.

2018년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 현지 국정감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2반이 맡는다. 국민의힘 이만희·권성동·김용관·박성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

현지 감사 5년만에 열려... 여야 현안 자료 제출 요구 쇄도
전현 도정 관통... 김 지사 피감기관장 첫 방어전 설전 예상

숙·오영환·이해식·송재호·최기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등 관한다.

이들은 양양군의 플라이강원 지원 부적절성과 유령공항으로 전락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지난해 레고랜드 PF 채무불이행 사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 상황, 도청 신청사 및 행정복합도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의 현안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세사기범이 연루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사업, 김 지사의 골프연습 보도 당시 상황과 대응 등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현안이 전 최문순 도정과 현 김진태 도정을 관통한다는 점에서 여야와 강원자치도까지 삼자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도에 따르면 11일 현재 현지 국감

관련 행안위 자료 제출 요구는 300여건에 달한다. 현안별, 실·국별로 주요 쟁점을 정리하며 민선 8기 도정 첫 국감 준비에 나섰다.

이에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평창군에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감사를 실시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대, 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 병원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는 17일 열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대한석탄공사와 강원랜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최기영기자

2023 10 12 ()

04

江原日報

‘학교 소멸 막아라’ 11개 교육 특례 추진

‘초·중학교 통합학교 운영’ 및 ‘교사 정원 증원’ 등 11개 교육 특례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입법과제로 추진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분야 입법과제를 논의한 결과 2차 개정 당시 미반영된 7개 과제와 신규 발굴한 4개 과제 등 총 11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는 입법과제는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권 제출권 확보’ 특례다. 도교육청은 교육·학예에 대한 집행 책임자이자 선출직으로 주민 대표성을 갖는 교육감이 도지사를 통해서만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현행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교사 정원 증원’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농산어촌이 많은 강원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특례를 통해 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해당 특례가 반영되면 10%가량의 교사를 더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2차 개정 당시 따로 추진됐던 ‘강원형 교육도시 지정 및 운영 특례’와 ‘국제학교 설립 등에 관한 특례’ 2건은 ‘글로벌교육도시 지정·운영 특례’로 통합해 추진한다.

새로 발굴한 ‘초·중 통합학교 운영’은 소멸 지역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과제다. 통합학교는 현재 각각 운영되고 있는 초등(6년)

도교육청,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분야 입법 과제 최종 선정
초중 통합학교 운영·교사 정원 증원 포함... 자체 감사권은 제외

및 중학교(3년) 교육과정을 1~9학년으로 합치고, 교직원 및 시설, 설비까지 공유하는 학교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학생 수 및 학급이 늘어나 농어촌지역 학교를 계속 유지하면서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도 운영할 수 있다.

도교육청이 제안한 ‘자체 감사권 확보 특례’는 입법과제에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는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권을 갖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자치업무의 독립성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해 자체 감사권 확보 특례를 제시했으나 강원특별자치도와의 이견으로 입법과제로 선정되지 못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긴밀한 협의와

설득을 통해 교육 입법과제들이 3차 개정안에 담길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신 교육감은 이날 중·고교 교복 및 원어민 강사 지원 등 도 및 도내 18개 시·군과 함께 실시해 온 교육협력 사업의 예산 분담 비율 조정과 관련, “강원도의 재정 건전을 위해서 우리가 고통을 분담하는 쪽으로 참여하려고 한다”고 했다. 최종 분담 비율은 오는 19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된다.

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10 12 ()

/ 19

다시 요동치는 고물가 불안

-10월 유제품 이어 주류 인상, 경제전반 상승세 차단해야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인상으로 인한 고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밀크플레이션’, ‘슈거플레이션’과 같은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10월 들어 유제품 가격이 오르게 이어 지난 11일엔 일부 기업의 주류 공장도매가가 7% 가까이 올랐습니다. 피자과 자장면 등 대중적인 음식 가격도 10% 인상됐습니다.

설탕과 소금이 동시에 1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는 통계청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9월 설탕 소비자물가지수는 141.58로 작년 같은 달보다 16.9% 상승했습니다. 가공식품은 물론 식당가 등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게 됩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각종 원부자재 가격 인상에 더해 최근 중동에서의 전쟁 발발로 유가 문제로 인한 물류비 상승이 경기를 어렵게 하는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는 자조도 나옵니다.

더구나 고금리로 인한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에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가 겹쳐 개선되기보다는 고물가 상태로 굳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고물가 현상이 전반 영역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물가는 소비자의 실질구매력을 떨어뜨리면서 소비 심리 위축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경제 큰 축인 수출전선에 적신호가 켜졌는데 소비 위축이 내수경기 흐름을 악화하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물론 가격 인상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다양한 물가 관리 정책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일례로 경기도에서는 취약계층 지원에 따른 기준 금액을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고물가 부담은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악영향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글로벌 경제 리스크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원자재 가격 불안 재현에 대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내 건설부문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 비용 증액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공공부문에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반영해 인상폭을 업체로 떠넘겨 자칫 도산 등 막다른 상황에 몰리도록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부쩍 늘어난 물가 상승 소식이 실물경제 전반 위기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책이 충실해야 할 때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12 ()

/ 19

산림엑스포 유종의 미 거두길

-관람객 100만명 돌파... 운영·안전 최선을

고성에서 열리고 있는 2023강원세계 산림엑스포가 기대 이상의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개막 18일 만에 누적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글날 연휴를 낀 지난 주말 이틀 동안 34만 명이 엑스포장을 찾는 등 흥행 물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과 한글날 연휴라는 호재에 힘입은 원인이 있겠으나, 산림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반영하는 현상입니다. 이제 행사는 종반을 향하고 있습니다. 엑스포가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과 안전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관람객 수 증가세는 주목할 만합니다. 조직위는 9일 기준 누적 관람객이 104만105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일일 최다 관람객은 추석 연휴 이후 연일 경신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4만 4663명을 시작으로 5일 4만 8843명에 이어 8일에는 18만 7343명을 기록하는 등 지속해서 늘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목표 관람객 132만 명을 초과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행사장에 방문객이 는 데에는 다양한 콘텐츠와 부대행사들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을 연휴도 흥행에 일조했습니다. 엑스포 상징물인 솔방울 전망대와 푸른지구관은 빠른 시

간에 입소문을 타 관람객을 불렀습니다. 주 행사장에 마련된 높이 45m 높이의 솔방울전망대는 동해와 울산바위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게 조성됐습니다. 푸른지구관은 첨단 미디어아트를 통해 기후위기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산림의 미래 가치를 전망하는 학술 행사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 산림수도로! 국제심포지엄'에는 한국과 일본의 산림전문가들이 참석해 산림 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등을 논의, 참가자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산림엑스포는 오는 22일까지 이어 집니다. 행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주최 측과 행사 관계자들은 참가자들의 편의와 안전에 애로가 없도록 폐막일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단풍철을 맞아 방문객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어 이에 따른 대비도 필요합니다. 고성 주행사장뿐만 아니라 인제와 양양, 고성 등지에서 열리는 부대 행사장의 흥행과 안전에도 힘써야 합니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주민의 관심과 응원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江原日報

2023 10 12 ()

/ 19

강원관광에 활력 불어넣고 있는 ‘세계산림엑스포’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속초, 고성, 인제, 양양을 찾는 방문객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림엑스포 조직위에 따르면 9일 기준 104만1,057명이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관람했다. 주행사장인 고성 세계잼버리수련장에는 41만2,231명, 부행사장인 속초의 설악산자생식물원·국립등산학교, 양양의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인제의 용대관광단지 등에는 62만8,826명이 몰렸다. 특히 지난달 22일 개막 이후 초반까지 솔방울전망대와 푸른지구관 등의 콘텐츠를 앞세운 주행사장이 흥행을 견인했다면 한글날 연휴가 시작된 지난 7일부터 부행사장 관람객이 주행사장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침체된 지역경제와 강원관광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코로나와 고물가 등으로 위축된 지역소비가 진작되고 있는 점이다. 산림엑스포 행사가 지역경제 정상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행사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부풀고 있다. 그동안 너무나 힘들고 지쳤기에 산림엑스포를 통해 마련된 반전의 계기는 더욱 소중하다. 벌써 지역에서는 행사 개최로 되찾은 활기를 지역경제 부흥의 마

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 같은 효과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상인,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에 더해 관광객들이 오래도록 기억하고 다시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의 특성을 살려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해 주고 주민들의 마음이 담긴 정을 전달해 줄 때 관광객은 감동하고 다시 방문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최초로 산림엑스포를 개최한 까닭은 단 데 있지 않다. 대한민국과 강원자치도의 산림의 미래를 제시하고 새로운 지역 발전의 동력을 창출하는 계기로 삼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볼거리, 먹거리를 널리 알려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강원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화천 산천어축제가 자리 잡은 것은 독창성과 창의성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산림엑스포 역시 강원산림을 주제로 한 독창성과 창의성이 돋보인다. 도내 지역 행사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가가치를 제고했다는 점도 높게 평가할 부분이다. 또 일회성 성공에 그치지 않도록 장기적 안목에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내용과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깊은 고민은 향후 과제다.

江原日報

2023 10 12 ()

/ 19

중동발 강원 경제 먹구름, 선제 대응에 나서야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이 고조되며 '강원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 원유와 천연가스(LNG) 도입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과거 중동 전쟁 당시 오일쇼크 경험에 있는 강원도로선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고유가가 현실화할 경우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 불안으로 인해 정부가 확인하는 경기의 '상저하고(상반기는 낮고 하반기는 올라간다)'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환율·물가 오름세를 감안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당분간 고공행진이 불가피하다. 우선 고금리 직격탄을 맞

은 자영업자 대책이 시급하다. 올 6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은 7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 2분기 자영업 다중채무자(대출 기관·상품이 3개 이상)의 대출 잔액은 743조9,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9%(6조4,000억원) 더 늘었다. 고금리·고물가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팔 전쟁에 따른 해외 금융시장 불안 변수까지 겹쳐 '토털 리스크'가 밀려올 수 있는 상황이다. 유가는 이미 요동치고 있다.

특히 10일 오후 6시 기준 국내 휘발유 가격은 1,806.53원, 경유 가격은 1,713.32원을 나타냈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13주 연속 상승세로, 각각 2022년 8월 16일(1,808.17원), 올 1월10일(1,715.37원) 이후 최고

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지난해 2,200원대까지 치솟았던 국내 기름값은 올 들어 서서히 예년 수준을 되찾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감산 결정으로 오름세로 돌아섰다. 문제는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휘발유에 부여되는 가중치는 20.8로, 전체 459개 품목 중 다섯 번째로 높다. 그만큼 기름값의 등락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는 의미다. 월급만 빼고 모든 것이 오르

고 있다. 우윳값과 대중교통 요금이 올랐고, 맥주류 출고 가격도 11일부터 7%가량 인상됐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하마스 간 전쟁,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

물가 불안, 원자재 수급 전략 등 전방위 대책을

동절기 대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도 절실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및 금융 불안, 원자재 수급과 수출입 전략 등 전방위적인 철저한 대비책이 절실하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야 한다. 특히 정부 부처는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금융 불안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동절기 대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도 철저하게 챙겨 나가야 할 때다. 우리나라 난방비는 국제유가에 연동되기 때문에 장기적 동향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향후 수년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겨울만 넘기려는 일시적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